

# 의료인 폭행 예방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설치해야

## 신경림 간호협회장, 경찰청장 간담회에서 엄정 대응 요청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 대표들이 경찰청장을 방문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안민호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은 9월 4일 오전 민갑룡 경찰청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관이 함께 자리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응급실 안에 경찰청 배치와 같은 방안을 필요"라고 밝혔다.

특히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와 일반 주취자를 구분 없이 응급실로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응급실 내 주취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간호사 등 인력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필요한 만취자에게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 대표들이 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응급실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의료인 이 폭행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의료인을 직접 문제해결 당사자로 조사하기 보다는 경찰청 내에 보건 의료법률지원단 배치 등을 통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인들은 존각을 다루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이러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예방·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

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만취자 치료와 보호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중심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폭행사건 발생 시 상황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원형방해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국제재난간호컨퍼런스 개최

## 국간사, 재난위험 감소 위한 최신지견 공유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권명옥 장군)는 제7회 국제재난간호컨퍼런스를 '연구와 교육을 통한 재난위험 감소' 주제로 9월 6~7일 성남 말리도피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와 함께 제30회 군진간호학술대회가 열렸다. 국내외 재난간호 전문가와 임상실무자, 연구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가·국제적 재난위험에 대비한 재난간호의 역할과 국가 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최신 재난실무경험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 의료인력을 위한 재난교육의 미래 방향' 주제 기조연설에서는 재난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 및 교육제공자의 역량강화 등이 강조됐다. '왜 최대 다수의 최대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수 있는가? '간호사들은 어떻게 재난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등 주제로 공동발표가 진행됐다. '재난 시 태국 공군의 국내 항공공무수송' '화상 관리의 최신지견' '육군 장교의 정신건강 이해력'

등의 분과발표가 이뤄졌다.

권명옥 학교장은 환영사에서 "국제재난간호컨퍼런스는 국내외 재난간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난간호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라며 "대한민국 유일의 군 간호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세계 재난위험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안중성 국군의무사령관은 "그동안 국내외 재난위기 시 간호사들이 크게 활약해왔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재난간호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재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선두에서 준비해야 한다"면서 "재난간호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 감사드리며, 간호협회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 간호사 보수교육

## 방문간호사 실무역량 강화교육

— 방문간호 경력자 대상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보수교육 '방문간호사 실무역량 강화교육 : 방문간호 경력자 대상'(보수교육 16시간 인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프로그램명	방문간호사 실무역량 강화교육(방문간호 경력자 대상)
일시	2018년 10월 10~11일(수~목)
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인원	50명(선착순 마감)
신청기간	2018년 9월 10일(월)~10월 5일(금)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방문간호사 실무역량 강화교육(방문간호 경력자 대상)' 검색 → 신청 및 결제
- ※ 본 교육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교육 신청자 중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교육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산업간호사회, 근로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산업간호사회(회장 정혜선)는 생명사랑 인식개선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안전센터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과로로 인한 자살문제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 '현장에서의 자살경향성 선별과 대처'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프로그램' 주제로 강의가 이뤄졌다. 게이트키퍼 역할의 중요성과 자살을 암시하는 상황적 신호,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대처방법 등을 다뤘다.

한편 산업간호사회는 올해 4월



부천시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의 과로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건강문제 등에 대해 신속히 상담할 수 있는 상담전화(1899-0222)를 운영하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jo@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제1차 회의를 8월 29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5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과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 공병태 조선대 간호학과 교수(한국간호학회 부회장, 한국적철학회 부회장)가 참여하고 있다.

제5기 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결과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안) 안건에 대해 심의를 유보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향후 진행하기로 했다.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안) 안건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는 인증제 도입방안과 검사대상자에 대한 이익과 위험이 고려된 항목 확대방안으로 안건을 분할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주혜진 기자 hjjo@

## 감염병 검사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검사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심의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협력체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구축된다. 호남권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권역별 협력체계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목적으로 감염병 검사업무에 대한 상호협력력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발생, 군중 행사 등에 따른 검사 수요 증가 시 감염병 검사를 공동으로 대응하며, 검사와 관련한 시설, 장비, 자원 등의 공동 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남권역 업무협약은 보건환경연구원 간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7월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대비해 호남권역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국제 행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좋은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jo@

## 감염예방 미이행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

산후조리원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명단과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또한 산모·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내년 초에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b>간호사신문</b>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6-3390	보건진료소협회 (02) 2296-7677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교사회 (02) 527-336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회 (010) 2061-647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82-6006	보혈심장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림간호사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52) 230-0735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 이직방지 교육지원

자신감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생한 간호술기 숙달교육!

**전국 권역센터 상시 실기실 오픈!**

- 대상 : 실기 교육을 희망하는 간호사라면 누구나
- 내용 :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간호술기 15가지
- 강사 : 센터 강사표준화 교육 이수자

\*신규간호사실기교육신청만 혜택 : 6월부터 진행되는 '찾아가는 이직방지' 혹은 '조직문화개선교육' 우선 지원

\*신청 대상기관 제외 : 상급종합병원, 500명 이상 종합병원

### 신/규/간/호/사

연간 10,000명 이상의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진행 중!

서울·강원 02-2268-2632~3	부산·울산 051-442-3824~5
대구·경북 053-756-8487	인천·제주 032-441-2926
경기 031-302-9504	경남 055-281-5522
대전·충북·충남 042-825-0786	광주·전북·전남 062-222-5025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대표 전화 **1522-1755**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 [www.RNjob.or.kr](http://www.RNjob.or.kr)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